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15호 / 03월 11일

2003년도 중국 예산안: 赤字財政 기초 유지

1. 개요

□ 상화이청(項懷誠) 중국 재정부장은 3월 6일 제10기 全國人民代表大會(의회: 이하 全人代) 제1차 회의(3.5~18)에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.

- 금년 예산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 재정으로 편성되었으며, 주요 재정투자사업은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, 과학기술·교육 투자, 사회보장제도 확충, 서부개발 가속화, 주민생활 개선 등임.
-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예상 규모는 3,198억 元으로 전년대비 3.2% 증가하였는 바, 이는 작년 증가율 19%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증가율이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IMF 권고치인 GDP 대비 3.0%를 넘는 수준임.

□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미·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 국제정세 불안과 수출여건 악화,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 불리한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민간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견인하고, 둘째, 취업난 가중 및 사회불안 요인에 대처하며, 셋째, 도·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조화로운 지역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해서임.

2. 지난 5년간(1998~2002)의 재정 성과에 대한 평가

☐ 긍정적 평가

- 첫째, 안정적인 재정수입에 따른 국가재정 증대
 - o 총재정수입이 1997년 8,651억 元에서 2002년 1조 8,914억 元으로 증가함으로써 119% 증가(연평균 증가액: 2,053억 元)
 - o GNP 대비 총재정수입 비중도 연평균 1.4% 포인트 증가하여 1997년 11.6%에서 2002년에는 18.5%로 확대
- 둘째, 중앙재정의 지방이전지불 규모 확대에 의해 지역균형발전 촉진
 - o 2002년도 지방이전지불액은 1997년의 6.1배인 4,025억 元에 이르러 연평균 43.4% 증가(단, 세수반환금 3,014억 元과 체제정보조금 323억 元 제외)
- 셋째, 재정지출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
 - o 특히 사회보장, 과학기술과 교육, 농업,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분야에 대한 투입이 대폭적으로 증가
- 넷째, 재정의 거시조정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 지속적인 고도성장 촉진
 - o 적극적인 내수확대정책을 추진하고 6,600억 元(누계 기준)의 건설국채 발행
- 다섯째, 지속적인 규범화를 통해 법에 의한 재정관리 실현
 - o 예산법, 회계법, 등기회계사법, 행정소송법 등 제정

☐ 반면,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재정적자의 확대, 분식회계장부·탈세 등에 따른 재정질서 혼란, 일부 지역의 재정기반 취약 등이 지적됨.

3.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

☐ 중국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자 예산을 편성함.

- 금년도 중앙 및 지방의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8.4% 증가한 2조 501억 元, 지출은 전년대비 7.7% 증가한 2조 3,699억 元에 달함.

o 이에 따라 금년도 중앙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3.2%(100억 元) 증가한 3,198억 元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
o 한편, 중앙재정은 수입이 1조 1,940억 元, 지출 1조 5,138억 元으로 편성됨으로써 각각 전년대비 5.1%와 4.7% 증가함.

※ 2002년도 전국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(채무관련은 미포함)

- 재정수입: 1조 8,914억 元 (예산대비 899억 元·전년대비 15.4% 증가)
- 재정지출: 2조 2,012억 元 (예산대비 899억 元·전년대비 16.4% 증가)
- 재정적자: 3,098억 元

- 중국은 금년도 장기건설국채 발행계획을 지난해보다 100억 元 감소한 1,400억 元 규모로 상정하고 있는바, 농촌의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, 경제구조조정, 생태환경 건설, 중서부지구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임.

□ 금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음.

- 농업과 농촌경제·사회 발전 가속화

- o 농촌 조세 및 부과금 개혁 시범작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중앙재정에서 지방 이전지불 특별보조금 350억 元을 조성(전년대비 60억 元 증가)
- o 이 밖에 기초시설 건설, 생태환경 건설, 농촌빈곤구제, 우량품종 보급, 농산물 품질 안전표준체계 및 측정체계 구축, 농업구조조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

- 도시주민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46억 元 증액하고 재취업보조정책에 대해 47억 元 증액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

o 이 밖에도 파산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110억 元 배정하고 기업 정년퇴직자의 기본 양로금과 건국초의 혁명간부들을 위해 84억 元 증액

-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의 적정수준 인상

- 공무원 급여인상은 당초 작년에 시행키로 되어 있었으나, 도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문제가 우선시 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로 연기하였음.
-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재정의 지방이전지불액 증액
- 세수반환금 3,404억 元과 체제정보조금 326억 元 외에 이전지불금 4,207억 元을 배정함으로써 전년대비 140억 元 증가
- 교육 및 과학기술관련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
- 군 작전능력제고를 위해 국방비를 전년대비 9.6% 증액한 1,853억 元으로 책정
- 채무이자상환 지출을 966억 元으로 책정(전년대비 284억 元 증액)

4. 평가 및 시사점

- 금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기능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경제·사회 발전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.
- 특히 일반지출을 줄이고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, 도시빈민층의 최저생활 보장, 취업난 해소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함.
- 또한, 빈곤지역에 대한 중앙재정의 이전지불 확대와 서부개발 관련 재정 및 세제상 우대정책 등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.
-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는바, 특히 대내외의 불안정한 요인들에 대비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임.
- 그러나, 2002~2003년도 재정적자가 IMF 권고치인 GDP 대비 3.0%를 넘어섰고, 중앙재정의 총채무규모가 6,404억 元을 기록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

자 확대는 금후 중국정부의 경제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.

- 뿐만 아니라,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, 금융보험업의 영업세율 1%포인트 인하, 서부대개발 지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우대정책, 지방이전지불 규모 증액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(***)